

## 일본 타산지석 삼을 한 가지...휴 패트릭, “한국 경제 과제는 혁신”

등록 2019-06-11 15:22:30 | 수정 2019-06-11 16:07:13

美 컬럼비아대 일본경제연구소 소장...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 참석  
“핵전쟁보다 큰 문제는 기후변화”



휴 패트릭(왼쪽) 미국 컬럼비아대 일본경제연구소 소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특별 강연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가 최정상=세계경제연구소)

휴 패트릭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소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특별 강연에서 경제 혁신을 강조했다. 패트릭 소장은 일본 경제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혁신 활성화'를 꼽았다.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연구해 온 패트릭 소장은 이날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일본이 앞으로 20년 동안 세계 3대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리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여기에 고령사회로 바뀌며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경제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와 기업에서 노동 공급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이민 정책 및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트릭 소장은 일본 경쟁력의 핵심 기반 중 하나가 탄탄한 지방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서방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며, "일본 기업은 일본이 지닌 경쟁력과 사회력의 직접 수혜자로 양질의 공적 교육과 현장 교육의 성공 및 철두철미한 노동, 잘 갖춰진 금융체계가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본 경제의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의 임원진은 통상적으로 틀을 깨는 사고방식을 시도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거나 '시도해 볼 만하다'고 여기는 변화를 실행하지 않는다"며 "일본 회사원들이 회사 수직구조나 집단 중심적인 사고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으며, 일본 기업은 미국처럼 창의적인 독창성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무사안일'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실패 대가를 너무 두려워하고 경제 성공 보상을 하지 않는 체계"라며 "일본은 타고난 가회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구 통합을 꼽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섬나라이고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어떻게 변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소장은 강연 후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책 입안자들이 엔화 약세와 수출 강세를 원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를 만들 시장 조건과 기능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정책을 펼치지 못해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경제 혁신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낮은 생산성이 문제였다"며, "한국 경제는 어떻게 생산력을 끌어 올릴지 고민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투자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트릭 원장은 "3~4년 전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핵전쟁이었지만 이를 피할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리 강력하고 명민해도 자연재해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단기간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각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다하도록 의지를 결집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아직도 요원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경제혁신해야 日의 ‘잃어버린 20년’ 겪지 않을 것”

황혜진기자 [best@munhwa.com](mailto:best@munhwa.com)

대표적 일본 전문가 휴 패트릭 美교수 초청 강연

“세계혜택으로 기업R&D 확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日은 거시경제 개혁못해 실책  
한국, 日과 반대로 가야” 권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시의 일본과 달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인 휴 패트릭(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의 경험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패트릭 교수는 “일본과 한국은 제도와 사고관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면서 “일본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대표적인 문제로 폐쇄성과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꼽았다. 패트릭 교수는 “기업과 국가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과 내수 중심의 경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국민성 등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로 희생한 일본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평소 그는 정규직 공개채용(공채)이란 일본 특유의 채용제도와 계속될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패트릭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개인주의 경향이 짙고 독립적”이라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의 실책은 총수요 관리를 못한 것이고 거시경제 분야에서 혁신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은 이와 반대로 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패트릭 교수는 “일본은 폐쇄성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도 외국인 인력에 대해 획기적으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공급 부족의 문제는 경제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mailto:best@munhwa.com)

## "日 경제 문제는 현실 안주하는 중산층...韓, 반면교사 삼아야"

'금융 석학' 휴 패트릭 교수 방한 강연  
日 '잃어버린 20년' 오래 연구한 전문가  
"日, 가계·기업 위험 회피 성향 뚜렷"  
"韓, 경제 생산성 끌어올릴 방안 절실"

등록 2019-06-11 오후 4:39:16

수정 2019-06-11 오후 4:39:16

김정남 기자



세계적인 금융 석학인 휴 패트릭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일본 기업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미국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문화가 아니지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 ◇'금융 석학' 휴 패트릭 교수 방한 강연

대표적인 국제금융 석학이자 일본 전문가인 휴 패트릭(82)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1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잇따라 강연을 한 자리에서 "일본 경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사안일한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패트릭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컬럼비아대에서 일본경제·비즈니스센터장을 맡고 있다.

패트릭 교수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가계와 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일본 주요 기업의 임원진을 보면 통상 틀을 깨는 사고를 시도하지 않아요. 회사의 수직적인 구조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요. 미국과는 다른 점이지요."

그는 또 "일본의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검증된 주요 기업과 금융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저축과 예금을 많이 하다보니 대출 여력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가계,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이 뚜렷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벤처캐피털(VC)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패트릭 교수는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은행들도 돈더미에 앉아있지만 흥미롭게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모험을 즐기지 않는 일본 특유의 성향 때문으로 읽힌다.

패트릭 교수는 "일본이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혁신을 모색해야 국제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텐데 지금은 잘 사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기업은 지나치게 실패의 대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모든 국가는 국가별로 문제에 시달리게 마련인데요. 일본은 특유의 섬나라 특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알지 못하는 언어(일본어)를 주로 쓰지요."

패트릭 교수는 일본 은행권의 해외 진출이 미비한데 대해서도 "일본 경제가 쇠퇴하면서 은행들이 해외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했는데, 쉽지 않았다"며 "일본 본사의 입김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韓, 경제 생산성 끌어올릴 방안 절실"

일본 사회는 여러모로 한국 사회와 닮아있다. 패트리 교수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위기론까지 나오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지난 20년 불황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패트릭 교수의 한국 경제 조언은 어떨까. "한국 경제가 직면한 숙제는 어떻게 경제 혁신을 활성화할 것인가입니다. 일본이 20년간 한국 경제에 교훈을 줬지요. 기업이 연구개발(R&D) 지출을 늘린다는가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패트릭 교수는 한국 은행권이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라는 질문에는 "일본 은행산업의 취약성은 해외에 진출해 인수합병(M&A)을 할 때"라며 "현지의 사회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의 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